



# 철의 노동자

조합원 중심!  
단일노조 완성!  
생존권 사수!

제14 - 21호/2026년 07월 03일/FAX(031)680-6865/md.kwmu.kr/전국금속노동조합 만도지부 지부장 이현우

## 14기 만도지부 임시대의원대회 마무리!

### - 전체 확대간부, 26년 임단협 투쟁 결의 다져

지난 7/1 ~ 2일, 충북 단양 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된 14기 만도지부 1년차 임시대의원대회가 확대간부들의 투쟁 결의를 통해 힘차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날 임시대의원대회에는 금속노조 박상만 위원장 동지가 참석해 만도지부의 역할 기대와 조합원 중심의 활동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 □ 26년 임단협,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번에 확정된 요구안은 물가인상을 조차 따라가지 못한 임금정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금속노조 만도지부와 만도노동조합의 단협을 하나로 통합해 만도지부의 새로운 단협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여기에 중앙교섭 참가 요구와 함께 AI 등 로봇 도입에 따른 노사협의 등 금속노조 공통 요구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내하청 및 비정규직 차별 금지 그리고 자동차 산업 생태계 변화에 따른 고용보장 등 노동자들의 미래와 직결된 요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현장의 힘으로, 하나가 될 때 승리합니다!

이번에 확정된 요구는 한가지, 한가지 모두가 절실합니다. 더욱이 이번 임단협은 금속전환 이후 첫 교섭입니다. 단순히 올해 임금인상 요구만이 아닌, 앞으로 만도지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결정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대응이 앞으로의 2년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또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교섭에서 시추과 대등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입니다. 교섭위원 몇 명이 주장만 한다고 우리의 요구가 성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교섭의 승리와 쟁취는 오직 현장이 하나가 될 때 가능합니다.

# 26년 임단협, 우리의 요구는 무엇인가?

## - 고용보장을 위한 정년연장, 신규채용, 실질임금 보전이 핵심

지난 6/8일 임단협 준비위 활동을 시작으로 26년 임단협 요구를 준비하기 위해 한달여 동안 달려왔습니다. 현장의 여론 수렴 과정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종 요구안을 확정했습니다. 남은 것은 어떻게 우리의 요구안을 성과로 만드느냐는 것입니다.

한편,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 임단협 요구안은 금속노조 중집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만도지부에서 최종 요구안을 확정했지만, 금속노조 방침 포함 여부와 반노동적 요구가 담겨 있는지 들여다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의와 승인된 임단협 요구안은 다음 주 시측에게 전달됩니다.

### □ 26년 임단협에 만도지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월급제 이후 정체된 실질임금 회복을 위한 O/T 20시간 요구와 월급제 수당 인상,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계한 정년연장, 2012년 이후 중단된 신규채용, 조합활동 보장 등이 이번 26년 임단협의 주요 핵심 과제입니다.

이외에도 별도요구안으로 요구한 의료비 지원 문제와 차별 해소 문제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번에 최종 확정된 요구안을 함축하면 임금은 제대로, 노동의 가치는 정당하게, 안정적 고용보장을 통한 만도의 지속가능성 확인입니다. 본격적인 교섭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홍보물을 통해 “왜 우리의 요구가 정당한지? 왜 필요한지” 등에 대해 한가지씩 풀어 갈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와 확대간부 수련회를 통해 전체 간부들은 “선봉투쟁과 26년 투쟁 승리를 결의했습니다.”

만도지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결과물로 평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 □ 지부는 교섭 중심, 지회는 현장 조직이 관건입니다!

지부와 지회 그리고 전체 조합원 하나가 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올해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14년만의 금속전환과 첫 교섭이라는 의미가 말해 주듯 이번 교섭은 새롭게 출범한 만도지부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올해 임단협의 성과는 교섭위원만의 힘만으로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조합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결해 주십시오. 26년 임단협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